

MARTIN JACOBSEN

덴마크 출신의 연주자 Martin Jacobsen은 프랑스 파리를 거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유럽 여러 나라와 세계 곳곳을 바쁘게 오가며 David Sanborn 같은 세계적 연주자와 함께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Martin Jacobsen은 1950년대 Miles Davis 밴드와 함께 활동했던 John Coltrane의 음악을 접하게 된 후 음악적 표현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끼게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19살에 처음으로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음악을 시작한 후, 테너 색소폰 연주자인 Tomas Franck로 부터 몇번의 레슨을 받았지만 스스로 반복 하여 연주를 해보고 익힌것이 본인의 음악세계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주된 요소였다고 말한다. 실수를 범하고, 잘못된 테크닉을 교정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한 최대한의 힘든 노력을 기울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야 말로 음악을 배우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1990년대, Martin은 코펜하겐 재즈씬에서 활동하고 있는 Bust'n Bloopers 빅밴드, Bob Mintzer, Jacob Fischer 등과 같은 젊은 연주자들과 협연을 하였고 1993년도에는 이중 기타리스트인 Jacob Fischer와 함께 4인조 밴드를 꾸리기도 하였다.

1995년도에는 그는 색소폰 연주자인 Bob Rockwell의 조언을 따라 파리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Doug Raney, Bobby Durham, David Sanborn, Gil Goldstein, Rick Hollander, Jesse Van Ruller, James Genus, Gene Lake, Niels-Henning Orsted Pedersen, Antonio Farao, Mark Taylor, Alain Jean-Marie 등과 같은 연주자들과 함께 활발한 방송, 연주 활동과 앨범작업을 병행하고있다.

그는 파리에 머무는 시간만큼이나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몽골, 싱가포르, 중국,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스코틀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모잠비크,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레바논, 덴마크 등 세계 곳곳의 여러나라를 다니며 연주 활동을 펼치는 시간이 많다.

바쁜 일정중 2008부터 2009년 까지 Martin은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인 David Sanborn의 밴드 일원으로 유럽의 큰 재즈 페스티벌과 연주를 함께 했는데 이 활동에서 주로 연주된 음악은 2008년 Decca 레코딩 회사에서 발매된 David Sanborn의 “Here&Gone” 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며, 이는 색소폰 연주자 David “Fathead” Newman 과 Hank Crawford 를 위한 헌정 앨범이다.

또한 팀의 리더로써, Martin Jacobsen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두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는데 2003년 발 매된 “Current State”라는 앨범과 2013년 발매된 “Live in Tokyo” 라는 앨범이다.